

한국어 대화체의 부 대화 유형 및 담화표지에 관한 연구*

이현호 임혜원 · 김영미 · 양영하
동양공업전문대학 상명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A Study of Korean Subdialogues and Discourse Markers

Lee, Hyonho Lim, Hye-won · Kim, Youngmi · Yang, Youngha
Dongyang Technical College Sangmyu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대화체에 사용되는 담화표지와 부 대화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한국어 대화체에 사용되는 각종 담화표지에 대한 기존의 언어학적 연구를 정리하였고, 실제 한국어 대화자료를 녹취, 전사하여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었으며,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어 대화체에서 관찰되는 부 대화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부 대화와 담화표지들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것은 인간과 컴퓨터간의 특정 목적 대화를 구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인간과 컴퓨터가 예약, 상담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화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실제로 사용하는 담화표지 및 의사소통 전략 등을 반영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담화분석 연구자들이 실제 대화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어 대화체의 기저에 흐르는 대화의 메카니즘을 다방면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전산학 연구자들이 한층 바람직한 한국어 대화 인지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시작하는 말

모든 자연언어의 대화체가 그렇듯이 한국어 대화체 역시 매우 다양한 종류의 담화표지(discourse markers)와 여러 범주의 부 대화(subdialogues)를 포함한다. 비록 이들의 종류와 범주가 아직 종합적으로 연구, 조사된 바 없다 하더라도 이들을 분석하고 규명하는 작업은 언어학적으로나 전산학적인 관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한국어 대화체에 관한 언어학적 연구는 통사 구조나 음운 규칙 등의 연구에 비하면 양적, 질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다. 그것은 불

과 90년대에 들어서 우리 언어학계에서 화용론이나 응용언어학 분야가 제법 인식되기 시작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체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로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단일 문장이나 형태소, 음운 규칙을 연구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의사소통 상황(communicative situation)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의도(intention)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해석해내며, 특정 목표(goal)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담화 플랜 및 그 플랜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strategies) 등은 문장구조나 음운 규칙, 형태소 분석만으로는 전혀 밝혀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어 대화체의 연구는 인간과 컴퓨터간의 특정 목적 대화를 구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물론 지금도 인

* 본 연구는 과학기술처의 소프트웨어 연구과제의 하나인 한국어 대화의 인지 모형 연구 개발의 일부임.

간과 컴퓨터가 예약, 상담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화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이 지니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은 바로 인간이 실제로 사용하는 담화표지 및 의사소통 전략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에 관한 연구는 물론 전산학 전공자들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도 있겠으나, 인간과 컴퓨터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매개체가 언어라는 점에서 언어학 연구자들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담화분석 연구자들이 실제 대화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어 대화체의 기저에 흐르는 대화의 메카니즘을 다방면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전산학 연구자들이 한층 바람직한 한국어 대화 인지 모형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본 연구는 한국어 대화체의 메카니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어 대화체에서 사용되는 부 대화(subdialogues)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종 담화표지(discourse markers)와 이들 부 대화 유형들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실제 한국어 대화 자료를 녹취, 전사하여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었으며,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어 대화체에서 관찰되는 부 대화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또한 각 부 대화와 담화표지들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2. 부 대화(Subdialogues)와 담화 플랜

부 대화에 관한 기존의 여러 연구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리트만·앨런(Litman·Allen 1987)의 모형을 근간으로 채택하였다. 리트만·앨런은 기존의 플랜-지향 모형(plan-based models)을 발전시켰는데 그것은 기존의 모형들이, 화제를 표상하는 플랜구조와 언어 발화들 사이의 다양한 상관 관계를 분명하게 구별해내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발화들과 플랜들간의 다양한 상관관계를 포착할 수 있는 플랜-지향 모형을 제안한 것인데, 이 모형을 통해서 리트만·앨런은 발화체가 담화

상 화제와 연관지어지는 각 특정 방식들을 여러 부류의 담화 플랜(discourse plans)으로 규명하였다.

물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은 임시 기억 저장 및 처리장소인 'stack'이라는 인지적 장치를 채택하여 부 대화의 메카니즘을 설명하였다. 위에 인용한 담화 플랜들도 모두 이 stack의 활용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원래 이들이 제안한 모형에는 담화 플랜 말고도 영역 플랜(domain plans)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영역 플랜이란 화제의 내용을 결정짓는 플랜으로서, 발화체들을 이들 영역 플랜과 연관지어주는 담화 플랜과 구별된다. 가령, 영역 플랜의 도입을 신호하는 발화를 생산 가능하게 만드는 담화 플랜이 있는가 하면, 영역 플랜에 관한 대화를 지속시키는 담화 플랜이 있을 수도 있다. 결국 담화 플랜은 대화의 영역에 의존하지 않는, 대화과정 자체에 관한 지식을 표상하는 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리트만·앨런의 연구에 준해서 말하자면 본 연구는 한국어 대화체의 분석을 통해서 바로 이 담화 플랜에 속하는 내용을 규명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리트만·앨런이 제안한 담화 플랜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The Continue Class
 - continue plan
 - track plan
- (2) The Clarification Class
 - identify-parameter plan
 - correct plan
- (3) The Topic Shift Class
 - introduce plan
 - modify plan

이들 담화 플랜의 유형은 모두 담화 참여자들이 대화상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화제를 기준으로 분류된 것들이다. 가령 continue class에 속하는 부 대화들은 현재 화제가 대화상에서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clarification class의 부 대화는 담화 상대방이 요구하는 수치나 세부정보 항목을 제공하거나, 대화의 흐름상 이해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topic shift class의 부 대화들은 새로운 화제를 도입하거나, 현재의 화제를 약간 변형시켜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담화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 부 대화의 유형 및 담화 플랜들은 본 연구에서 분석된 부 대화의 유형들과 비교, 대조될 것이다.

3. 한국어 담화표지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한국어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다. '담화'라는 용어를 제목에 사용한 연구는 더러 찾아볼 수 있으나, 그 분석 내용이 주로 문장 경계를 넘지 못하는 것들도 다수 발견된다. 여기서는 실제 담화 맥락 속에서 담화표지를 분석한 연구만을 채택하여 그 연구 결과만을 열거하고자 한다.

신현숙(1989)에서는 '담화 대응 표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지만}의 담화 기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연속}	{-거리}
{그러니까}	{+연속}	{+거리}
{그러나}	{-연속}	{-거리}
{그렇지만}	{-연속}	{+거리}

여기서 [연속]이란, 일어난 사건의 연속·상태의 연속·심리작용의 연속 등을 뜻하며, [거리]는 형식의 거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시간거리·심리거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신현숙(1990)에서는 {그래}를 포함하는 담화표지들, 즉 {그래서/ 그래서말이야/ 그래요/ 그래잉/ 그래그래/ 안 그래/ 응 그래}의 기능을 추상의미와 구체의미로 세분하였는데, 추상의미는 [담화대응+담화연속]으로, 구체의미는 [의문]→[단정], [요구]→[시사]로 분석하였다.

송병학(1994)에서는 {아니}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이 담화표지의 기능을 [주목획득], [환영], [호기심], [궁금], [인사], [언권], [담화개시], [경악], [설명], [이유], [찬양], [시인], [지시], [양해], [청탁], [권유], [확인], [추궁], [항

변], [질책], [부당], [반항], [조롱], [위협], [추측], [당황], [화제 전환], [결양], [양보], [격려], [동정], [고취], [욕망], [담화 종결] 등으로 방대하게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아니}가 대화체에 나타날 때에는 음운상 하강조, 말미에 성문폐쇄성 순간단힘음을 동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기갑(1995)에서는 {이제}를 분석하였는데, 그 담화 기능으로서 [선행 발화를 매듭짓고, 후행 발화의 의미적 연결을 도우면서 후행 발화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였다. 이것은 언어학에서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는 전경화(foregrounding) 및 배경화(backgrounding)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와 비슷한 연구가 임규홍(1996)에 의해서 수행되었는데, 여기서는 {인자}가 분석 대상이었으며, 분석 결과는 {인자}가 [붙들], [바꿈], [주의집중], [시간별기], [구정보 뒤에서 신정보를 이끔] 등의 담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자}는, [대조]와 [전환]이라는 어휘적 의미를 가진 시간부사 {이제}에서 점차 그 어휘적 의미가 약해지면서 선행절을 후행절에 순행으로 전환시켜 주는 담화 표지로 변형되었다고 논의하고 있다.

물론 이들 외에도 한국어 담화표지에 관한 연구는 많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상 그들 연구 결과를 여기에 모두 열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또한 담화표지와 함께 한국어 대화체 분석에 필수적인 연구가 바로 연결어미에 관한 연구인데, 그 부분은 다음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제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와 대화 분석 결과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하자.

4. 분석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텔레비전 대담 프로그램을 녹취, 전사한 것이다. 프로그램 진행자 한 사람과 보조 진행자 한 사람, 초대손님 한두 사람이 수행한 한국어 대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보조 진행자는 실제 대화에서 지극히 보조적인 역할만을 담당했으므로 실제 대화는 주 진행자와 초대손님간의 1 대 1 대화이면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나누는 대화(face-

to-face conversation)의 성격을 띠고 있다. 초대손님이 2명인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대화는 주 진행자와 초대손님 1, 주 진행자와 초대손님 2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역시 1대 1 대화라고 간주할 수 있다.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는 물론 방송국 스튜디오이다. 게다가 방청객들이 이삼십명씩 앉아있고, 카메라, 조명 등 모든 조건이 대화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연 이런 의사소통 상황에서 진행자나 초대손님이 자연스러운 발화 자료를 생산했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대화 개시 5분 내지 10분 후부터는 이들이 대화 상황에 몰입하여 매우 자연스러운 대화를 교환하였고, 특히 이들의 대화가 녹취, 전사되리라는 점은 아무도 알지 못했으므로 이들이 프로그램 중반부터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교환했으리라고 상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대화 자료의 분량은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대담 프로그램 3회분을 분석한 것이다. 녹취된 자료는 Levinson(1983) 등에서 사용된 표준 전사방식에 의해 전사되었고, 억양, 휴지(pause), 음의 장단, 말하기 차례(turn-taking)의 교차 내지 중첩 시점 등에 이르기까지 망라된 정밀전사(narrow transcription)를 수행하였다. 이 정밀전사는 향후에 부 대화와 담화표지, 연결어미 등의 관계를 보다 철저히 규명하고자 할 때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정밀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가공전사(broad transcription)를 수행하였는데, 이것은 초기 단계인 본 연구의 성격상 부 대화의 유형 및 담화표지의 종류 등 개괄적인 현상만을 우선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가공전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화표지 및 부 대화의 규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은 삭제하였는데, 그 결과 대담 프로그램 1회당 평균 15,000자 이상의 발화 자료가 분석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분석의 과정은, 우선 대화체에서 관찰되는 부 대화를 나누고, 담화 기능을 중심으로 각 부 대화에 나타나거나 그 부 대화를 유발시키는 담화표지를 분석하였다.

5. 대화체에 나타난 담화표지의 사례

우선 담화표지의 종류 및 그 실현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분석에 사용된 대화체 자료는 텔레비전 대담 프로그램이다. 이후로 인용되는 자료에서 화자 1은 대담 프로그램의 진행자이고, 화자 2와 3은 초대손님이다. 본 연구의 대화체 자료에서 관찰된 담화표지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5.1. {그러니까}

2: 재산싸움 이런 식으로 몰꼬 가면서 작품을 쓰느 겐니다 그게.

1: 그렇습니까?

1: 그러니까 꼭 바로 우리 생활을 쓰신 거로군요요?

2: 네. 그래 인제 사회적인 현실을 축약시켜서 우리 가정 문제로

1: 예.

5.2. {근까}

1: 그것도 뭐, 저, 한 신문사가 아니고 두 신문에서 입선이 되셨다고요?

2: 예. 저 재수좋다 보니까

1: 근까 한국일보에

2: '호두기', 다, 저, 다, '해부'고요.

1: '해부', 당선작이?

2: 예. 당선작이고.

5.3. {근데}

1: 예 예. 이제 곧 그 작품 우리가 대할 수 있게 될 걸로

2: 예.

1: 생각을 하는데 아마 관심있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1: 근데 이, 저, 문학의 장르가 여러 장르데

2: 예.

1: 어째서 회곡을 택하시게 됐습니까?

5.4. {그러면}

2: 산업체 비슷하게 그런 거죠.

1: 음.

- 2: 그런 거니까 별 한계 아니죠 그게.
 1: 그러면 뭐, 뭐, 영어 일어는 뭐, 학원을 다니셨다
 2: 학원을 다녔
 1: 하더라도

5.5. {그럼}

- 1: 제가 김선생님을 소개하면서 참 인생의 역경 드
 라마같은 인생을
 2: 예.
 1: 살고 계신 분이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 그럼 태어난 곳은 저 남쪽 지역이라면서요?
 2: 예. 저기 여수옆에 여천시
 1: 아.
 2: 그 묘도란 데 조그만 섬이 있어요.

5.6. {그래}

- 2: 자기가 접하는 여자가 있다는 거지.
 1: 예.
 2: 그래 내가 그 형체를 얘기했지. 이 여자는
 이렇게 몸이 말르고
 1: 네.
 2: 아주 예민하게 생기고 이렇게 틀림없다는
 거야. 자기가

5.7. {그래서}

- 1: 그것도 2남 7녀?
 2: 예.
 1: 오.
 2: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커트라인에 달랑 걸려가
 지고 태어났거든요.
 1: [웃음]
 2: 그래서 내 사는데 커트라인 인생을 살고 있지 않
 은가 이런 생각이
 1: 네.
 2: 종종 듭니다.

5.8. {그래가지고}

- 1: 아기씨. 예예.
 1: 아! 거 최미애씨 말을 참 잘 만들어 내신다
 정말.
 2: 예, 그래가지고에.
 1: 예 예 얘기 나셨군요. 그래서,
 2: 그래가지고.

5.9. {그러면서}

- 2: 그때 2원씩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1: 네.
 2: 2원씩 주고 길어가고 하는데, 우리는 길어다 주면
 서 5원씩 받아요.
 1: 예.
 2: 배달료가 붙어
 1: 예.
 2: 그러면서 물장사를 하는데, 거 미끄럽고 그
 러니까 이게 물지계를 지면은 물이 앞에 나
 오고 몸뚱이는 뒤에 오고 균형이 안 맞아
 요.
 1: 어렵죠. 예.

5.10. {그렇다면은}

- 1: 그럼 생활도 넉넉치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 저 결혼이후에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
 작되신 거
 2: 예 예.
 1: 아닙니까?
 2: 예 그렇죠.
 1: 그렇다면은 부인의 힘이 꽤 컸네요?
 2: 꽤 큰 거 아니라 인저 전부겠죠.

5.11. {그렇게 하다가}

- 2: 엇판하곤 다른 거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거
 겨울에는 그냥 미끄러져서 그냥 옷도 적시기도
 하고
 1: 음
 2: 참 고통스러웠어요.
 2: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또 채소장사도 해
 봤었어요.
 1: 야채장사?
 2: 예 저 밀고 다니는 리어카

5.12. {이제}

- 1: 그런 것중 털어놔도 될 일 그런 거 없습니까?
 2: 예, 그런 거가 좀 많지만은
 2: 이제 어떤 개인적인 그 좀 프라이버시 관계
 도 있고 그런거지만은
 1: 네.
 2: 특별히 또 생각나는 것도 있어요.

5.13. {인제}

- 1: 간혹가단 김선생님처럼 거짓말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 모양이로군요.
 2: 인제 거짓말은 역학뿐만이 아니죠. 의사선생님들도 거짓말하고
 1: 아아 예 그래요.

5.14. {아니}

- 1: ...기관지 천식이라는 병을 수술로 치료하지는 않아요
 2: 아::
 3: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인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5.15. {저기}

- 1: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개포동인데요.
 2: 저기 오개월된 애기예요.
 3: 그 애기가 지금 그, 못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전화 주신 겁니까?
 2: 예. 먹지 않아서 애기가 저기 탈진 상태가 됐을까봐...

5.16. {에}

- 2: 또 가정적인 어떤 불만도 있고, 인제 공부도 못하고 이러니깐 인제 참 밖으로 튀어나오고 싶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다가
 1: 네.
 2: 나오게 된 건데,
 2: 에 하루는 옛장수가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그걸 하루 종일 따라다녔어요.
 1: 음, 옛을 먹고 싶어서요?
 2: 먹고 싶어서가 아니고 옛장사의 생리에 대해서 알고 싶기도 하구,

5.17. {참}

- 1: 극작가며 학생이며 옛장수였었고,
 2: 예.
 1: 예. 그리고 점도 보셨고,
 2: 예.
 1: 참 어떻게 보면 정말 가만히도 못있으시는 그런 분이시네요?
 2: 그러니깐 그, 염소라는 거죠.

5.18. {아}

- 2: 그러면서 인제
 1: 아, 서암선생 옆에 있었던 말이죠?
 2: 예.

5.19. {뭐}

- 2: 그러나 인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주고 어 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죠.
 1: 뭐, 으음, 많은 운명철학원이다 성명철학원이다 이런 철학원을 낸 집이
 2: 네.
 1: 간판을 내걸고 남의 인생을 점쳐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2: 네.

5.20. {또}

- 2: 소설가는 거짓말을 더 잘 하고
 1: 아
 2: 소설가는 거짓말을 잘 해야지 또 재미가 있는거 아닙니까?
 1: 아. 네, 네.

위에 제시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담화표지들을 관찰하면서 이들이 특히 각 부 대화의 서두위치에 나타나는 환경에 주목하였다. 담화표지들은 따로따로 나타나는 경우도 물론 많이 관찰되었으나, 때로는 둘 이상의 담화표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다음은 그러한 사례의 일부를 열거한 것이다.

5.21. 복합 담화표지의 사례

5.21.1. {이/ 그/ 저}

- 1: 형제분은 얼마나?
 2: 그, 저, 제가 원래 태어나기를 드라마틱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1: 예.
 2: 왜냐하면 요즘은 4수 5수 그런 거 대학생이 있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8수만에 아들을 낳거든요.
 2: 또 본인이 이, 저, 본인 어머니가 파출부 생업만 한다고 그랬는데 또 아버지께서도 또 뭐 어떤 수

입이 있어가지고 또 어떤 재산이 있어서...

5.21.2. {뭐 이렇게}

2: 처음에는 뭐 이렇게, 물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5.21.3. {인제 그러니깐}

1: 시험과목이 여러 개 있을텐데 거기 어떻게 그럼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셨습니까?

2: 인제 그러니깐 처음에 그렇게 검정고시를 집에서 보라고 집사람이 그

1: 예.

2: 좀 약을 올리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5.21.4. {그러니깐 인제 뭐}

1: 근데 열여덟살에 어떻게 가출을 하셨죠?

2: 그러니깐 인제 뭐, 원래 그, 좀, 타고난 기질적인 게 역마살이란게 있기도 하고

1: 예.

2: 또 가정적인 어떤 불만도 있고, 인제 공부도 못하고 이러니깐 인제 참 밖으로 튀어나오고 싶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다가

1: 네.

5.21.5. {그래서 인제/ 그래가지고 인자}

2: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다가 그 옛장사의 세계를 전부 다 그, 수학공식 외우듯이 외운거죠.

1: 오

2: 이리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할 수 있겠다.

2: 그래서 인제 저보다 그 좀 나이 어린 친구를 꼬드겼죠.

1: 네.

2: 그래가지고 인자 어느 날 몰래 그냥 가출을 한거죠.

5.21.6.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2: 사실 또 그런 거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생 살다보면 불가사의할 때가 많거든요.

1: 네.

2: 그러니깐 이제 그렇게 쪽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아, 그 기세가, 등등하던 기세가 풀이 죽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5.21.7. {아 그래서}

2: 보냈는데 며칠 있다가 인자 그 남편이 왔어요.

1: 예.

2: 아 그래서 참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고맙느냐고 그러니까

1: 예.

2: 그 가정 문제가 그렇게 근까

5.21.8. {근데 그}

1: 간판을 내걸고 남의 인생을 점쳐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2: 네.

1: 근데 그, 물론 역학에 의해서 다 말씀이 되겠지만

2: 예.

1: 간혹가단 김선생님처럼 거짓말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 모양이로군요.

5.21.9. {아 그래서}

2: 보냈는데 며칠 있다가 인자 그 남편이 왔어요.

1: 예.

2: 아 그래서 참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고맙느냐고 그러니까

1: 예.

2: 그 가정 문제가 그렇게 근까

5.21.10. {좀 그}

2: 아 인제 해결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얘길하더라고요.

1: 예.

2: 좀 그 유사한 일들이 참 많아요 보면

1: 네 네.

2: 뭐, 역학이란 건 잘못하면 그, 칼, 무서운 칼을 들려주는 거니깐

이러한 복합 담화표지의 사례가 발견되는 것은 물론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자료가 실제 상황에서 녹취된 대화 자료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담화 참여자들은 마음 속의 지식 저장소에서 정보를 회수,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생산한 발화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도 문제-해결,

추론 등 다양한 심리적 과정을 거치면서 입으로는 그 결과를 언어적으로 곧바로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가령, {이, 그, 저}와 같은 담화표지를 중간중간 많이 삽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일 이 담화 참여자들이 글쓰기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교정 작업을 해가면서 글짓기를 할 것이고, 그 결과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복합 담화표지들을 많이 생산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위의 복합 담화표지들을 모두 독립적인 담화표지로 간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담화표지의 종류 및 유형을 관찰, 분류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다음 단계의 연구에서는 이들 복합 담화표지 중에서 실제로 독립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분석할 것이고,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복합 담화표지들의 담화 기능도 새로운 시각에서 조사될 것이다. 가령, {그래서 인제}를 분석할 때 이것이 단지 {그래서}와 {인제}의 담화 기능을 합한 정도의 기능만을 수행하는가,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가를 따로 분석할 것이다.

6. 담화 기능에 따른 부 대화(Subdialogues)의 유형별 분류

한국어 대화체에 나타나는 부 대화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주요 화제(main topic), 부 화제(subtopic), 담화 참여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intention), 대화의 주도권(initiatives) 문제 등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도 이들 조건이 고려되었으나 분석 자료의 특성상 담화 기능별로 부 대화를 분류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예를 들어 주도권의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상 프로그램 진행자가 거의 대화를 풀어나가는 식으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혼합-주도형 대화의 경우와는 달리 여기서는 주로 상대방의 의도 파악, 화제의 전환, 대화의 연속성(continuity) 유지 등의 담화 기능이 부 대화를 유발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화체의 부 대화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류하려면 보다 다양한 목적의 대화체를 분석 대상에 넣어서 방대한 분량의 대화체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대담 프로그램이라는 영역적 한계 속에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이 외에도 자동차 구입 상담 프로그램, 병사 상담 프로그램, 호텔 및 항공권 예약 대화 등 특정 목적을 지향하는 대화(task-oriented conversation)들이 아주 많다. 가능한대로 이들을 망라해서 한국어 대화체에 개재하는 부 대화의 유형 및 그에 간여하는 담화표지들을 정리하면, 궁극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한 인간과 컴퓨터간의 대화 인식 모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담 프로그램의 대화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i) 첫인사
- (ii) 화제의 도입
- (iii) 대담의 수행
- (iv) 대화의 마무리
- (v) 끝인사

즉 이 순서는 진행자가 초대손님을 스튜디오로 불러내고 특정 화제를 도입하여 대담을 진행하며 특정 시점에서 대화를 마무리하고 끝인사와 함께 프로그램을 마치는 일련의 영역 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플랜을 다루지 않고, 실제 대화에 개재하는 담화 플랜만을 관심사로 한다. 게다가 본 연구의 특정 관심이 담화표지와 부 대화 유형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정한 담화표지가 특정 영역 플랜의 생산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여기서 일단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로 관찰된 부 대화의 유형을 열거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목록은 전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둔다. 이 목록에는 다른 유형을 첨가하거나, 수정, 세분화, 통합, 삭제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음을 밝혀둔다. 다만 한국어 대화체의 부 대화 유형 분류에 관한 최초의 시도로서, 텔레비전 대담 프로그램 대화 분석의 결과라는 의미에서만 수용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서 텔레비전 대담 프로그램의 대화체를 분석한 결과로 드러난 부 대화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세부정보의 처리
 - (1.1) 추가
 - (1.2) 확인
 - (1.3) 수정
 - (1.4) 배경정보의 제공
- (2) 평가·요약
- (3) 화제의 전환
 - (3.1) 상위대화→부 대화
 - (3.2) 부 대화→상위대화
- (4) 화제의 유지
 - (4.1) 화제의 연속성 유지
 - (4.2) 상황 진행과정의 제시
 - (4.3) 주도권의 탈환

여기에 열거된 유형들은 대화의 여러 부분에서 임의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물론 그것은 담화 참여자들의 의도에 의해서 제어되는 것이므로, 위에 열거한 것이 대화의 흐름상 정해져서 나타나는 순서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그럼 이번에는 이들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6.1. 세부정보의 처리

담화상에서 참여자들이 세부정보를 다루어가는 행위는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가장 빈번히 수행되는 행위일 것이다. 대화의 결속성(coherence)을 확보하는 일에는 연속성의 유지와 같은 담화 행위가 필수적인데, 상대방의 발화로부터 얻는 세부정보에 대한 심적 표상이 즉각 생겨나지 않는 경우에 담화 참여자들은 반드시 그 세부정보를 화제로 다루는 부 대화를 생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행위가 참여자들간에 공동작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은 자명한 일인데,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서는 이 행위가 다양하게 관찰되었다.

6.1.1. 세부정보의 추가

1: 신춘문에 회국부문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그것도 뭐, 저, 한 신문사가 아니고 두 신문에서 입선이 되셨대구요?

2: 예, 저, 재수좋다 보니까

여기서 대담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세부정보를 추가하기 위해서 부 대화를 유발시켰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화상에 세부정보를 추가시킬 의도로 담화 참여자들이 생산해내는 부 대화는 글자 그대로 단순한 신정보의 추가 행위로서, 세부정보의 확인이나 수정 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6.1.2. 세부정보의 확인

1: 그것도 뭐, 저, 한 신문사가 아니고 두 신문에서 입선이 되셨대구요?

2: 예, 저, 재수좋다 보니까

1: 근까 한국일보에

2: '호두기', 다, 저, 다, '해부'고요.

1: '해부', 당선작이?

2: 예, 당선작이고.

1: 예.

대화상에서 세부정보를 확인하는 행위가 부 대화를 생산한다. 통상 관찰되는 담화표지로는 '그러니까', '근까', '그래서', '그러면', '그럼' 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만한 점은 세부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의 부 대화에서는 회기발화(recurrences) 또는 반복발화(echo utterances)가 자주 관찰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담화 참여자는 자신이 확인하고자 하는 바로 그 정보를 그대로 복사, 재생산하여 상대방의 확인을 권장 내지 강요하는 행위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니까'와 같은 담화표지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앞선 발화의 내용이나 의미를 그대로 반복 생산하는 경우라면 일단 그 부 대화는 [세부정보의 확인-부 대화]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6.1.3. 세부정보의 수정

2: 그 때 이제 얘기를 제가 단손에 키우니까예. 얘기를 누가 봐줄 사람이 없더라고예. 그래서 이자네 살 짜리는 걸리고

- 1: 으흠
 2: 두 살짜리는 저기 안고
 1: 음 민주 걸리고
 2: 아니
 1: 아 민주 두 살짜리
 2: 민주는 애기지예.
 1: 아 애기 애기
 2: 애기는 업고
 1: 으흠
 2: 머스마는 걸리고

담화 참여자가 대화상에서 특정 세부정보를 수정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역시 부 대화가 생산된다. 이 사례에서는 초대손님의 두 살짜리 딸인 '민주'에 관한 세부정보의 수정 행위가 수행되었다. 화자 2, 즉 초대손님은 우리 말에서 가장 명시적인 '아니'를 사용하여 세부정보의 수정 행위를 수행하였는데, '민주는 두 살짜리 아기이므로 걸려서 갈 수가 없다.'는 세부정보가 성공적으로 전달된 직후에 '애기는 업고'라는 발화를 통해서 상위대화로 다시 빠져나온 것을 알 수 있다.

6.1.4. 배경정보의 제공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도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지환경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관찰한다. 자신의 의도가 적절하게 전달될만한 인지환경을 상대방이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면 원래의 화제를 그대로 지속시키면서 대화를 이끌지만, 만일에 대화상에서 이해 또는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참여자는 우선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다음 발화를 잇는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설혹 이해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 참여자들은 때로는 자신의 발화나 자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도 하고, 자신이 앞으로 전달할 내용에 대한 배경지식을 미리 상대방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담화행위의 결과로 부 대화가 생산되는데, 본 연구에 사용된 대화 자료에서도 그와 같은 부 대화의 유형이 관찰되었다. 다음 자료를 살펴보자.

- 1: 야, 아니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숫자를 잘 아십니까?

- 2: 아니, 황인용씨도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십니까? 지가 이래봐드요. 아들 딸 구분 놓지 않고,
 1: 예.
 2: 딸만 낳아서 잘 길렀다고 그래가지고 이, 가족계획협회에서
 1: 어.
 2: 저한테 상을 준다고 준다고 그러는 걸 안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 1: 야, 아니 인구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네에.

화자 2는 대화상에서 자신이 권위를 가지고 특정한 주장을 할만한 사람이라는 자격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기 위한 작업으로 부 대화를 생산하였다. 위의 사례에서는 발화 '아니'가 관찰되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발화로 이 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다음 자료를 살펴보자.

- 1: 형제분은 얼마나?

- 2: 그 저 제가 원래 태어나기를 드라마틱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1: 예.
 2: 왜냐하면 요즘은 4수 5수 그런 거 대학생이 있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8수만에 아들을 낳거든요.
 1: 8수?
 2: 예, 그러니까 딸을 일곱남구
 1: 오 예.
 2: 여덟번째 낳구 인저, 저가 마흔셋에, 예, 막 내로 태어났으니깐 9수만에 태어났죠.

배경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담화 참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배경지식을 제시함으로써 그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용이하게 수행하려는 의도의 표현이다.

바로 위 대화에서는 진행자가 초대손님에게 형제가 몇이나 있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초대손님은 곧바로 숫자를 사용해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지 않고, '그 저'를 사용하여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 그것은 단순히 '저까지 아홉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보다는, 자기 형제들이 많이 태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것

이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화자 2, 즉 초대손님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의사소통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참여자의 일정한 의도와 플랜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6.2. 평가·요약

2: 재산싸움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작품을 쓰는 겁니다 그게.

1: 그렇습니까?

1: 그러니까 꼭 바로 우리 생활을 쓰신 거로군요?

2: 네. 그래 인제 사회적인 현실을 축약시켜서 우리 가정 문제로

1: 예.

2: 끌고 온 거죠.

이 부분은 화자 2, 즉 초대손님이 자신의 작품 및 작품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던 도중에 화자 1, 즉 진행자가 유발시킨 부 대화이다. ‘그러니까’로 시작된 이 부 대화는 초대손님의 작품에 새로운 의의를 부여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초대손님의 작품이 지니는 의의를 정리, 비평하는 것과 같다. 대화의 흐름상으로는 이야기의 주도권이 초대손님으로부터 진행자로 넘어가는 부분이 된다.

이후로도 언급되겠지만, 이 유형은 리트만·앨런이 분류한 담화 플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진행자가 오직 초대손님과 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특정 정보를 알게 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부 대화 유형이 아닌가 생각된다.

6.3. 화제의 전환

화제가 전환되는 일은 대화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것은 사실은 담화 참여자들이 각자 수행하는 문제-해결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화제 전환 행위가 문제-해결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이유는, 대화의 흐름상 자신이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전혀 해석이 되지 않는 발화를 만났을 때 참여자들은 바로 그 내용을 새로운 화제로 삼아서 부 대화를 시작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자료가 지니는 특성상 화자 1, 즉 프로그램 진행자는 초대손님과 대화해야 하는 과제 외에도, 시청자들이 초대손님에 관한 특정 정보를 갖도록 만들어야 하는 임무까지도 함께 안고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해석하기 어려운 정보를 부화제로 삼아서 부 대화를 촉발시키기도 하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 잘 해석이 되지 않을만한 정보가 초대손님의 발화에 들어있는 경우에도 그 정보를 부화제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대화상에서 화제 전환 행위가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서 두 유형으로 화제 전환 행위를 분류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상위대화에서 부 대화로 들어가는 방향이며, 다른 하나는 부 대화에서 다시 상위대화로 빠져나오는 방향이다. 여기서 상위대화라 함은 특정한 의의를 지니는 용어가 아니라, 단지 상대적으로 부 대화가 시작되기 전의 시점에서 원래 화제를 다루던 대화를 뜻한다. 부 대화가 마무리되고 다시 원래 화제를 다루는 대화로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 전혀 새로운 화제로 빠져나오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상위대화’, ‘부 대화’라는 용어는 단순히 설명의 편의를 위해 채택한 것들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그럼 먼저 상위대화에서 부 대화로 들어가는 사례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6.3.1. 화제의 전환: 상위대화→부 대화

1: 제가 김선생님을 소개하면서 참 인생의 역경 드라마같은 인생을

2: 예.

1: 살고 계신 분이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 그럼 태어난 곳은 저, 남쪽 지역이라면서요?

2: 예, 저기, 여수 옆에 여천시

1: 아

2: 여덟번째 낳구 인제, 저가 마흔셋에, 예, 막내로

태어났으니깐 9수만에 태어났죠.

- 1: 그럼 9남매중의 막내?
- 2: 예 그렇죠.
- 1: 그것도 2남 7녀?
- 2: 예.
- 1: 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화제로부터 좀더 구체적인 화제로 들어가는 경우에 부 대화가 생산되는데, 여기서는 '그럼'이 담화표지로 사용되었다. 이와 유사한 '그러면', '그러면은' 등도 이 유형에서 관찰된다.

6.3.2. 화제의 전환: 부 대화→상위대화

- 1: 예 예. 이제 곧 그 작품 우리가 대할 수 있게 될 걸로
- 2: 예.
- 1: 생각을 하는데 아마 관심있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 1: 근데 이, 저, 문학의 장르가 여러 장르데
- 2: 예.
- 1: 어째서 회곡을 택하시게 됐습니까?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은 화제들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주요 화제에서 부 대화가 생기고, 거기서 다시 부 대화로 갈라져 들어가는 경우는 실제 대화상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부 대화가 마무리되면 대화는 다시 상위대화 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위의 사례는 바로 그러한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는 '근데'가 담화표지로 사용되었고, 담화 참여자들이 부 대화를 마무리짓고 빠져나온 경우를 보이고 있다.

6.4. 화제의 유지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간접 행위에 의해 자신의 화제가 중단된 경우에 화자는 상대방의 발화가 끝나는 시점에서, 또는 상대방의 발화를 중단시키면서 원래 자신이 다루었던 화제를 이어나가는 행위를 수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발화에 계속 협

조하다라도 발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파생되어 나온 부 화제를 도입하고 그 부 화제에 관한 발화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정 담화표지가 발화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화 자료에서는 대략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들 모두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담화표지는 '그래서'이다.

화제의 연속성(continuity)을 유지한다는 일, 의사소통상 결속성(coherence)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담화 참여자의 의도적 행위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제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기로 하자.

6.4.1. 화제의 연속성 유지

- 2: 여덟번째 낱구 인지, 저가 마흔셋에, 예, 막내로 태어났으니깐 9수만에 태어났죠.
- 1: 그럼 9남매중의 막내?
- 2: 예 그렇죠.
- 1: 그것도 2남 7녀?
- 2: 예.
- 1: 오.
- 2: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커트라인에 달랑 걸려가지고 태어났거든요.
- 1: [웃음]
- 2: 그래서 내 사는데 커트라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 1: 네.
- 2: 종종 듭니다.
- 1: 네 네.

이 대화에서 진행자는 '9남매 중에 막내?'라는 발화를 사용하여, 초대손님이 9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는 점을 시청자들에게 확인시키고자 하는 부 대화를 촉발시켰다. 초대손님은 진행자가 '오.'라는 감탄발화로서 자신의 의도를 달성하자마자 '그래서'라는 담화표지를 사용하여 원래 자신이 하려고 했던 발화를 계속 생산한다. 결국 잠시 진행자에 의해서 중단되었던 발화 행위를 초대손님이 계속하는 것인데, 진행자가 유발시켰던 부 대화로부터 다시 원래의 화제대화 쪽으로 빠져나온다는 단서로서 담화표지 '그래서'를 사용한 것이다.

6.4.2. 상황 진행과정의 제시

2: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거 옛판만 짚어지게 되면 전국 각지로 다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1: 아 예.

2: 그래서 하루종일 따라 처음에 말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다가 그 옛장사의 세계를 전부 다, 그, 수학공식 외우듯이 외운거죠.

1: 오

2: 이러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할 수 있겠다.

2: 그래서 인제 저보다 그, 좀 나이 어린 친구를 꼬드겼죠.

1: 네.

2: 그래가지고 인자 어느 날 몰래 그냥 가출을 한 거죠.

1: 예 그래서 뭐, 옛방을 여기저기 전전하시다가 그래도 서울 서울로 올라오셨겠지요?

2: 예

이 사례에서는 진행자가 초대손님의 발화 행위를 중단시키는 경우를 발견할 수 없다. 진행자는 다만 '아.', '네.', '오.', '네.' 등의 발화로 초대손님의 발화에 적극 협조할 뿐이다. 이런 경우에도 화자는 '그래서', '그래서 인제', '그래가지고 인자' 등의 담화표지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만한 점은, 대화 후반부에서 화자 1, 즉 진행자가 초대손님의 이야기를 잇고, 또 마무리하는 데 협조하는 시점에서 역시 '그래서'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 사례로부터 상정할 수 있는 점은, 참여자들이 화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담화표지는 바로 '그래서'이며, 해당 대화 시점에서 다루어지는 화제가 계속 유지되기만 한다면 심지어 참여자들이 말하기 차례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끄는 경우에도 담화표지 '그래서' 내지 '그래가지고'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6.4.3. 대화의 주도권 탈환

2: 체내에 남아있던 그런, 저기, 아기씨가

1: 예 체내에 남아있던

2: 예

1: 아기씨라 그러니까 참 근사하시네.

2: 예.

1: 아기씨 예예. 아, 거 최미에서 말을 참 잘 만들어 내신다 정말.

2: 예 그래가지고 예.

1: 예, 예. 애기 나셨군요 그래서,

2: 그래가지고

1: 어

2: 그래 임신이 됐으니까 아, 얼마나 좋은 거라예.

1: 예

이 사례에서 진행자는 초대손님이 사용한 '아기씨'라는 낱말 쪽으로 초점을 옮겨가서 그것을 부 화제로 다루는 부 대화를 야기시켰다. 초대손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내용을 계속 화제로 다루고자 하는 의도가 앞서기 때문에, 담화표지 '그래가지고'를 두 번 반복해서 발화하고 대화의 주도권을 다시 찾게 된다. 여기서 대화의 주도권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다음아닌, 자신이 다루고자 원하는 화제를 계속 다루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화자 1, 즉 진행자가 대화의 주도권을 다시 화자 2, 즉 초대손님에게 넘겨주는 시점에서 담화표지 '그래서'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신호에 의해서 초대손님은 다시 자신의 원래 화제로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역시 이 때에도 '그래가지고'라는 담화표지를 사용하여 새로운 부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결국 부 대화로부터 원래 화제를 다루는 상위 화제로 빠져나갈 때에는, 대화상 화자나 청자의 구분없이 모든 담화 참여자들이, 대화가 원래 화제로 복귀한다는 신호로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등의 담화표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7. 부 대화의 유형과 담화표지의 상관 관계

지금까지 부 대화의 유형과 특정 담화표지의 사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동일한 담화표지들 이상의 담화 기능을 담당하면서 여러 부 대화 유형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고, 특정 담화표지없이 분류될 수 있는 부 대화의 유형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들 관찰 결과는 어디까지나 본 연구에 사용된 특정 대화 자료에 국한되는 것들이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대화 자료를 보다 많이 분석함으로써, 부 대화의 범주 및 유형, 그리고 관련 담화표지의 용례를 보편화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부 대화의 유형 및 관련 담화표지의 용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 대화의 유형		관련 담화표지·유발표현
세부정보의 처리	추가	그것도, 뭐
	확인	근까, 그러니까, 회기발화, 반복발화
	수정	아니
	배경정보의 제공	아니, 이, 그, 저
평가·요약		그러니까, 그렇다면
화제의 전환	상위대화→부대화	그럼, 그러면(은)
	부대화→상위대화	근데, 그런데
화제의 유지	화제의 연속성 유지	그래서
	상황 진행과정의 제시	그래서, 그래서 인제, 그래가지고 인자
	주도권의 탈환	그래, 그래서, 그래가지고

표 1. 부 대화의 유형 및 관련 담화표지의 용례

8. 담화 플랜과 한국어 대화체의 부 대화 유형

위의 표 1에 제시된 부 대화의 유형들은 물론 앞으로 수정, 통합, 세분화될 여지를 안고 있는 것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대담 프로그램에서 녹취된 대화체 자료를 토대로 부 대화 유형을 분류한 것인데, 방송 대담이라는 담화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표 1의 부 대화 유형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분류한 부 대화의 유형들이 대략 일반적인 한국어 대화체의 부 대화 유형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진행자와 초대손님간의 대화가 프로그램의 목적상 매우 협조적이면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해결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부 대화의 유형들은 리트만·앨런이 분류한 담화 플랜들과 대응되는 것들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리트만·앨런은 영역 플랜과 담화 플랜을 구별하고 부 대화의 유형은 담화 플랜으로 다루었다. 물론 이들의

제안 역시 계속 세분화시켜가야할 대상들이지만, 본 연구의 수행 단계에서 한국어 부 대화 유형들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8.1. [세부정보의 처리]와 clarification class

리트만·앨런이 분류한 clarification class에서 'clarify'하는 대상은 당연히 세부정보다. 이들은 identify-parameter plan과 correct plan을 포함한다. identify-parameter plan은 글자 그대로 상대방 담화 참여자에게 parameter, 가령 수치나 위치 정보, 문제-해결 방법 등을 정해주는 것이다. correct plan은 담화 수행과정에서 상대방 화자의 예기치 않았던 발화 행위를 만났을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부정보를 다루는 부 대화의 유형이 리트만·앨런의 경우보다 더욱 세분화되었다. 그것은 분석 자료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나온 초대손님에 관한 세부정보를 보다 상세히, 정확하게 시청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진행자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세부정보의 추가, 확인, 수정, 제공 등의 부 대화 유형이 매우 빈번히 관찰되었고, 이들 부 대화와 관련되는 담화표지의 용례도 규칙적으로 발견되었다.

8.2. [화제의 전환]과 topic shift class

리트만·앨런의 topic shift class에는 introduce plan과 modify plan이 포함된다. introduce plan은 새로운 화제를 도입하는 플랜이고, modify plan은 대화상에서 화제를 약간 수정하는 플랜이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부 대화 중에서 [화제의 전환-부 대화]가 이들과 대응된다고 생각되는데, 1 대 1 대응을 시켜본다면 introduce plan은 본 연구의 [부 대화→상위대화] 유형에 해당되고, modify plan은 [상위대화→부 대화] 유형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8.3. [화제의 유지]와 continue class

리트만·앨런이 분류한 continue class에는 continue plan과 track plan이 있다. continue

plan이란 주로 상대방 화자의 질문에 응답하거나 상대방에게 협조적인 언어행위를 하는 사례에서 관찰되며, track plan이란 다음 단계의 행위가 협조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신호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비언어적인 행위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부 대화 유형들 중에서 이들 담화 플랜들과 대응될 수 있는 것을 굳이 찾는다면 [화제의 유지-부 대화] 유형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류한 [화제의 유지-부 대화]는, 담화 참여자가 원래 진행하고 있던 화제의 담화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생산하는 부 대화 및 그에 따른 담화표지의 용례이기 때문에, 리트만·앨런이 분류한 continue class의 담화 플랜들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다.

8.4. [평가·요약-부 대화]

이 유형은 본 연구에서 채택한 분석 자료의 특성상 발견되는 것인데, 초대손님의 이야기를 진행자가 중간 요약하고 다음 이야기를 계속 뜯겠다는 의도로 수행되는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다. 일반적인 대화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발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등의 담화표지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형식이 취해지겠지만,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서는 진행자가 시청자들의 이해 정도를 항상 계산하면서 대화를 진행시켜나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유형을 [의도 확인-부 대화]라고 하지 않고 [평가·요약-부 대화]로 분류하였다.

9. 토론 및 향후 연구과제

부 대화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화의 단락(segment)을 나눌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대화상에서 현재 다루어지는 작은 화제들 및 담화 참여자들의 문제-해결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화의 단락을 나누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순전히 언어적 직관에 의존해서만 대화의 단락을 나누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화자의 의도를 바탕으로 대화의 단락을 나누는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가령 파소노·리트만(Passonneau·Litman 1993)에서는 화자의 의도를 바탕으로 삼고 세 가지 언어적 단서, 즉 대명사, 담화표지(cue words), 휴지(pause)와 담화 분절경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다만 이들의 연구가 대화를 분석한 것이 아니고 화자 한 사람이 생산한 발화자료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연구가 대화체를 통해서 시급히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최근에 추·캐롤·카베리(Chu-Carroll·Carberry 1997)에서는 [정보-공유 부 대화] 유형이 논의되었다. 이들은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상담 대화를 분석하고 이들간의 대화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부 대화의 생산을 관찰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분류한 [배경정보 제공-부 대화]와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대화상에서 생산하는 부 대화의 유형이 여전히 세분화의 대상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대화의 단락을 나누는 기준으로 주도권(initiative)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워커·휘태커(Walker·Whittaker 1995)는 인간의 대화가 일반적으로 혼합-주도형이면서 제어부(control)에 의해 통제된다는 전제 아래, 대화의 제어 규칙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대화의 주도권 때문에 담화 구조의 일부가 생겨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일부의 제어 단락(control segment)들은 서로간 특정 층위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관찰하였다. 또한 특정 과제 지향 대화와 조언 대화를 비교한 결과, 두 유형의 대화에서 각각 제어부가 할당, 전이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본 연구에서 채택한 대화체 자료도 대화의 주도권 및 제어부의 관점에서 보다 정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분석을 통하여 좀 더 종합적인 부 대화의 유형 및 대화의 메커니즘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화자의 의도를 기준으로 대화의 단락을 나누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화자의 의도라는 것은 화용론적인 시각에

서 볼 때 화행(speech acts)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 대화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와 관련된 담화표지를 열거해보았으나, 이 연구 결과가 실제로 대화 인지 모형을 구현하는데 적용되려면 화행 유형과의 상관관계를 함께 분석해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화행과 아울러 향후 연구과제로 삼아야 할 부분은, 대응형의 사용과 부 대화 유형 분류의 상관관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centering과 같은 담화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한국어 대화체에서의 대응형 처리 문제가 연구되고, 그것이 화행 및 담화표지의 용례와 함께 고려되어 한국어 대화체의 부 대화 유형을 종합적으로 연구해내는 데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 존스(Jones 1997)는 정보과학이 언어학자들에게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가에 관하여 논의했다. 그녀의 논의는, 정보과학이 언어학자들에게 대규모의 말뭉치 언어자료를 분석하여 형식을 갖춘 계산 모형을 만들어내거나 자연언어처리 시스템에서 실제로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어학자들이 정보과학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국내의 동향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전산언어학의 틀 속에서 언어를 연구하는 훌륭한 언어학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실정은 많은 언어학자들이 전산언어학적인 연구에 동참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본 연구도 기존의 언어학적 연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계를 발판으로 삼아서 전산언어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분석 결과를 낳아가리라고 기대해본다. 존스의 말처럼, 정보과학은 보다 많은 언어학자들의 관심을 끌 자격이 있다.

10. 참고 문헌

- 송병학. 1994. 담화불변화사 '아니'. 우리말 연구의 샘터. 연산도수회선생화갑기념논총.
 신현숙. 1989. 담화대용표지의 의미 연구 -(그

- 래서/그러니까/그러나/그렇지만)을 대상으로 -. 국어학 19. 국어학회.
 신현숙. 1990. 담화대용 표지 {그래}의 의미 연구. 인지과학 2-1. 한국인지과학회.
 이기갑. 1995. 한국어의 담화 표지 '이제. 담화와 인지 1. 담화·인지 언어학회.
 임규홍. 1996. 국어 담화 표지 '인자'에 대한 연구. 담화와 인지 2. 담화·인지 언어학회.
 Chu-Carroll, J. and S. Carberry (1997) Generating Information-Sharing Subdialogues in Expert-User Consultation. cmp-ig/9701003.
 Jones, K. S. (1997) How much has information technology contributed to linguistics? In J. T. Coppock (ed.), Information technology and scholarly disciplines.
 Levinson, S. (1983) Pragmatics. Cambridge: CUP.
 Litman, D. and J. Allen (1987) A Plan Recognition Model for Subdialogues in Conversations. Cognitive Science 11, 163-200.
 Passonneau, R. and D. Litman (1993) Intention-based Segmentation: Human reliability and correlation with linguistic cues. Proc. of the 31st ACL, 148-155.
 Walker, M. and S. Whittaker (1990) Mixed Initiative in Dialogue: An investigation into discourse. ACL90.
 Whittaker, S. and P. Stenton (1995) Cues and control in Expert-Client Dialogues. cmp-ig/9504006.